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보건/비보건 계열 차이를 중심으로)

최혜연, 권지은, 김지민, 백경민, 이다인, 이효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1조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 washing (focusing on differences by health/non-health major)

Choi Haeyeon

초록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차이를 중심으로 손씻기의 지식, 태도, 실천 차이를 규명하고, 전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손씻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국민 손씻기 조사 설문지(학생)를 사용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보건계열 90명, 비보건계열 9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significant level α 는 0.05로, Independent t-test를 통해 계열 간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보건 계열 대학생이 비보건 계열 대학생에 비해 손씻기 지식이 높고($p=.010$),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p=.001$). 손씻기 실천에서 최근 1주일 간 일평균 손씻기 횟수에서는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p=.402$), 보건 계열 대학생이 비누 및 손세정제 사용 빈도는 높다($p=.048$).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건 계열의 경우 태도와 실천 간에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r=.25, p=.019$), 비보건 계열에서는 지식과 태도($r=.41, p<.001$), 지식과 실천($r=.24, p=.023$), 실천과 태도($r=.30, p=.005$)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논의: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에 비해 손씻기 교육 횟수가 높아 지식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이나, 이것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계열 학생들에게 손씻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보건 계열 대학생의 경우 손씻기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횟수를 늘리고, 이것이 긍정적인 태도 및 손씻기 실천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론: 손씻기 지식, 태도 면에서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에 비해 높았다. 보건 계열에서는 태

도와 실천 간에만, 비보건계열에서는 지식, 태도, 실천 간 상관 관계가 모두 유의했다.

key word: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보건 계열, 비보건 계열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세기 말 이미 WHO는 21세기가 ‘감염병의 시대’가 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2003년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를 시작으로 신종인플루엔자A(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등 각종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로 유입되었던 신종 감염병 가운데 신종인플루엔자는 2009년 유행 기간 동안 1516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260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는 2015년 유행기간 동안 확진자 186명 중 3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들 감염병의 공통점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접촉 및 비말 전파 경로를 갖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바이러스는 잦은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지 않는 등의 개인위생을 통해 상당부분 예방 가능했다 (질병관리본부).

손씻기는 전염병 발생의 예방과 전파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간단하고 비용효과가 크다. (정재심 외, 2007) 위의 신종 감염병 외에도 올바른 손씻기를 수행할 시 식중독, 눈병, 감기, 세균성 이질 등 각종 감염병의 70%

를 예방 할 수 있다 (장윤정 외, 2007), (장동방 외, 2015). 또한 손씻기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공중보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Ko IS, 1995).

바이러스가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점, 밀집된 인구 규모가 더욱 확대된 점,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세균의 확산, 세계 교류 확대 등의 이유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등장 및 기존 감염병의 재유행이 예견되는(송영구, 2005) 현 상황에서는 손씻기의 중요성과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손씻기 관련 연구는 주로 의료인 또는 초, 중, 고등학생,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용 효과적 수단이므로 비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역시 중요한 건강행위이다.

대학생은 일반 성인보다 위생교육을 받은 경험이 유의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중 손씻기 횟수, 외출 후 손씻기 횟수, 손 위생용품 사용 빈도가 일반 성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최혜선, 2014). 이를 통해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손씻기가 제대

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숙사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통학 거리가 길다. 또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 대외활동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학생의 손씻기 실천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접촉하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Atuyambe LM et al.(2016)에 따르면 대학생은 대학 내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지역사회로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건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씻기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박대권 외(2008)에 따르면 손씻기 지식이 높을수록 손씻기 태도는 긍정적이며, 손씻기 지식이 높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적극적인 실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씻기와 관련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높다.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지식, 태도, 실천을 비교하여 계열 간 차이를 규명하고, 각 계열 별 지식, 태도, 실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비보건계열 및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

학생 간의 손씻기 지식·태도·실천의 차이를 규명하고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실천도를 파악한다.
- 2) 계열에 따른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를 규명한다.
- 3)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계열에 따라 손씻기 지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계열에 따라 손씻기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계열에 따라 손씻기 실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태도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5)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태도와 손씻기 실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6)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실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7)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태도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8)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태도와 손씻기 실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9)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실천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의과 대학 의예과 1,2학년, 치의예과 1,2학년, 간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표본의 수는 G-power를 통해 계산되었으며, 각 계열의 지식, 태도, 실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t level $\alpha=0.05$, power=0.80, two side로 설정 후 계산된 84명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보건계열 94명, 비보건계열 94명, 총 188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비교 및 각 계열 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Y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편의 추출된 188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비보건 계열 94명, 보건계열 94명(간호대학 32명, 의과대학 31명, 치과대학 31명)으로 비비례 층화 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 (1) 현재 Y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이며,

대상자 제외 기준은

- (1)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복수전공하는 대학생
- (2) 휴학생

3. 연구도구

(1) 손씻기 지식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로 2006년부터 1~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인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2013)에서 사용한 ‘국민 손씻기 조사 설문지(학생)’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존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사용되던 도구를 예방의학 전공 전문의 2인이 일부 수정한 것이고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손씻기의 세균 제거 효과, 감염병 예방효과, 손씻기 방법 및 손씻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항목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에 체크하면 1점, ‘아니다’에 체크하면 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손씻기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손씻기 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로 2006년부터 1~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인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2013)에서 사용한 ‘국민 손씻기 조사 설문지(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존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사용되던 도구를 예방의학 전공 전문의 2인이 일부 수정한 것이고,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손씻기의 전염병 예방 효과, 손씻기 후 건조의 필요성, 손씻기 습관의 형성, 손씻기 노력, 손씻기 방법에 대한 항목으로, 총 6문항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에 체크하면 1점, “아니다”에 체크하면 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손씻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손씻기 실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제로 2006년부터 1~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연구인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2013)에서 사용한 ‘국민 손씻기 조사 설문지(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존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사용되던 도구를 예방의학 전공 전문의 2인이 일부 수정한 것이고,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손씻기 횟수, 손씻기 방법,

상황별 손씻기 습관에 관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황별 손씻기 습관은 “거의 씻지 않았다” 1점에서 “항상 씻었다” 4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 실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전 Y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에 대한 설문은 서울 시 소재 대학 중 편의 추출한 Y대학교에서 비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회관 1층 로비와 Cafeteria,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 시작 전 연구자의 사전 질문을 통해 비Y대학생,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 휴학생을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소요시간은 10~15분정도이며, 설문으로 인해 피로가 발생할 수 있어 중도포기가 가능함을 설명할 것이며,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고, significant level α 는 0.05로 설정하였다.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각 계열 별 지식, 태도, 실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계열은 보건과 비보건이 각각 50%였고 보건에서 3개과, 비보건 9개과가 설문에 응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56.1%, 여

자가 43.9%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3학년 26.7%, 4학년 69.4%, 5학년이상 3.9%로 평균학년은 3.78 ± 0.5 학년 이었다.

2. 손씻기 지식

대상자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으로, 손씻기의 전염병 예방 효과, 손씻기 방법,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손씻기 지식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 중 보건 계열의 경우 13.4점, 비보건 계열의 경우 12.78점으로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에 비해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10$). 손씻기 방법과 관련하여 ‘손씻기 후 수도꼭지를 종이타월로 감싼 후 잡는다.’의 항목에서 두 계열의 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	(%)	
Gender	Male	101	56.1	
	Female	79	43.9	
Grade	3	48	26.7	
	4	125	69.4	
	≥ 5	7	3.9	
Health	Medicine	29	32.2	
	Dentistry	33	36.7	
	Nursing	28	31.1	
Major	Liberal Arts	8	8.9	
	Commerce and Economics	28	31.1	
	Business	5	5.6	
	Science	5	5.6	
	Engineering	29	32.2	
	Non-health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1	1.1
		Social Science	3	3.3
		Human ecology	7	7.8
		Sciences in Education	1	1.1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3	3.3

<table 2> Correlations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 Washing

(N=180)

Health			
	Knowledge r(p)	Attitude r(p)	Practice r(p)
Knowledge	1		
Attitude	.16(.135)	1	
Practice	.09(.401)	.25(.019)	1
Non-health			
	Knowledge r(p)	Attitude r(p)	Practice r(p)
Knowledge	1		
Attitude	.41(.000)	1	
Practice	.24(.023)	.30(.005)	1

<table 3> Comparison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Hand Washing

(N=180)

		Health Mean±SD	Non-health Mean±SD	t	p
Knowledge		13.40±1.42	12.78±1.78	-2.59	.010
Attitude		21.26±2.62	19.91±2.76	-3.35	.001
Practice	Times per Day	9.03±6.86	8.18±6.57	-0.84	.402
	Use of Soap and Hand Sanitizer	4.511±0.48	3.867±1.07	-1.996	.048
	Behavior in Home and School	48.53±8.28	48.16±6.03	-0.35	.727

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해 지식 수준이 낮았다. 이 밖에 손씻기의 전염병 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비보건 계열이 손씻기의 음식과 관련된 전염병 예방 효과에 대한 지식이 낮다.

태도를 중심으로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손씻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손씻기 태도 평균 점수는 보건 계열 21.26점, 비보건계열 19.91점으로 보건계열이 비보건 계

3. 손씻기 태도
대상자의 손씻기에 대한 태도로, 손씻기의 질병 예방 효과, 손씻기 빈도, 방법, 습관, 실천

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두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손씻기 후 완전한 손 건

조’, ‘손씻기 실천을 위한 노력’, ‘육안적으로 더럽지 않더라도 손을 씻어야 한다.’ 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손씻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4. 손씻기 실천

대상자의 손씻기에 대한 실천으로, 최근 1주일 간 일평균 손씻기 횟수, 비누 및 손세정제 사용 빈도, 손씻기 부위, 학교 및 가정에서의 손씻기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Times per day는 1일 손씻기 횟수를 의미하고

Use of Soap and Hand Sanitizer는 손씻기를

할 때 비누와 손소독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사용한다(5점)까지의 서열변수로 간주하여 점수를 매겨 총합을 비교하였다. Behavior in Home and School는 상황별 손씻기 습관 중 학교와 가정의 손씻기 습관에 대해 각 문항마다 거의 씻지 않았다(1점)부터 항상 씻었다(4점)까지로 점수를 매겨 .학교와 가정에서의 손씻기 점수의 각 총합을 더한 값이다.

최근 1주일 간 일평균 손씻기 횟수는 보건계열 9.03회, 비보건계열 8.18회이나, 계열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p=.402$). 비누 및 손세정

제 사용 빈도는 보건계열 4.511, 비보건계열 3.867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비누 및 손세정제 사용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48$). 두 계열 간 손씻기 부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공통적으로 손톱 밑을 가장 잘 씻지 않았다. 상황별 손씻기 행태 비교에 있어서 역시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727$).

5. 계열에 따른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

각 계열별로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보건계열의 손씻기 태도는 손씻기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5$, $p=.019$).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태도($r=.16$, $p=.135$),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실천($r=.09$, $p=.4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건계열의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1$, $p<.001$). 또한 손씻기 지식과 손씻기 실천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4$, $p=.023$), 손씻기 태도와 손씻기 실천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 $p=.005$).

6. 손씻기 인식

대상자의 손씻기에 대한 인식으로, 손씻기의 감염병 예방 효과,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 학

교 화장실의 손씻기를 위한 환경, 학교 화장실에서 손씻기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최근 1년간 손씻기 교육 여부와 교육 시간 및 방법, 교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손씻기의 감염병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손씻기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14.4%)', '습관이 안 되어서(8.9%)', '씻을 장소(세면대)가 없어서(5.6%)', '화장실이 더러워서(3.3%)' 순이었고, 이외에 '수건이 없어서(1.1%)', '시간이 없어서(1.1%)', '화장실에 가기 귀찮아서(1.1%)'도 있었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학교 화장실의 손을 씻기 위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p=.002$). 손씻기 활성화를 위해 공중 화장실 환경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비누 및 손전용 세정제 설치(26.1%), 핸드 드라이기나 종이타올 설치(24.4%), 세면대 보수 및 개선(6.1%), 잦은 청소(5.6%)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최근 1년간 손씻기 교육에 관련하여서는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교육을 받은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p<.001$), 전체의 80%가 최근 1년간 손씻기 교육을 받지 못했다. 최근 1년간 손씻기 교육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교육 횟수는 1회(10.0%), 2회(4.9%), 3회(3.9%), 4회(3.3%) 순이었고, 교육 시간으로는 10분 미만(11.1%), 10-30분 미만(7.8%) 순이었다. 손씻기 교육 방법은 강의(5.6%), 시청각 자료(비디

오)(5.6%), 유인물(5.0%), 실습(4.4%) 순이었다. 손씻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가 60.0%로 가장 많았고,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955$).

7. 손씻기 홍보

보건계열 학생은 52.2%, 비보건계열 학생은 54.4%가 손씻기 관련 홍보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홍보물을 주로 접하는 매체는 보건계열 학생은 보건소 및 병원 PDP, 지상파 TV, 인터넷 순이었고, 비보건계열 학생은 보건소 및 병원 PDP, 지상파 TV, 지하철, 버스 순이었다.

광고 내용 이해정도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토대로 손씻기 생활태도 변화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러한 광고를 통해 36.1%의 학생이 손씻기 방법에 대한 지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계열 간 지식, 태도, 실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지식과 태도였다.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지식과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손씻기에 대한 교육도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받았다. 이는 장운정 외(2007)의 연구결과인 교육이 지식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손씻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손씻기 지식수준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더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교육이 지식과 태도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천면에서는 계열간 손씻기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비누 및 손세정제 사용 비율에서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미국 CDC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한 흐르는 물로 닦아내고, 이때 최소 20초 이상 손을 문지르고, 깨끗한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손을 말리는 것이고 만약, 비누와 물이 없는 경우 손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계열은 비보건계열에 비해 효과적인 손씻기를 실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손씻기 실태 및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위 조사 결과의 성인 손씻기 실태와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손씻기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성인은 2014년도 평균 6.6회로 조사되

었으나 보건 대학생은 4.5회, 비보건 대학생은 3.9회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성인 평균보다 비누나 손세정제 사용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루 평균 손씻기 빈도를 살펴본 결과, 성인은 2014년 평균 9.8회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보건 대학생은 9.0회, 비보건 대학생은 8.2회로 조사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성인 평균보다 손씻기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태도, 실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을 보면, 박대권 외(2008)에 따르면 보건행위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타 보건행위와 마찬가지로, 손씻기에서 역시 지식과 태도 및 실천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손씻기 지식이 높을수록 손씻기 태도는 긍정적이며, 손씻기 지식이 높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적극적인 실천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건계열에서는 태도와 실천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보건계열에서는 지식, 태도, 실천간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위 연구의 내용과 유사하다.

보건계열은 비보건계열에 비해서 교육 경험도 많고 지식수준도 유의하게 높게 나왔지만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에서 태도와 실천 간에서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지식이 높은 것에 비해 태도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을 태도와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보건계열 대학생에 대한 손씻기 교육은 대체로 임상실습입문, 임상의학입문 강의에 한정되어 있고 지속적이지 않다. 유성미(2013)에 따르면 보건계 대학생들이 입학 후 손씻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92.2%)이 5회 미만이었고 이론적 강의를 통한 교육이 50.4%로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 손씻기에 대한 교육으로 지식이 높아졌을 때 이를 태도와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1회성 교육이 아니라 학교 수업과정과 임상실습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를 참고하여 보건계열에서의 높은 지식수준을 태도와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보건계열은 지식, 태도, 실천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계열에 비해 지식수준은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지식수준을 높여 태도와 실천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최은희 외(2014)에 따르면 손씻기에 대한 교육 PPT와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손씻기 효과에 대해 보여주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손씻기 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손씻기 교육을 받은 대학생이 지식, 태도와 가정에서의 손씻기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포스터, 자가점검표 등의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보건계열을 대상으로 지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귀찮아서’와 ‘습관이 안 되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무식 (2015)에 따르면 손씻기 습관화 방안으로 성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가정과 밖에서 손을 씻는 곳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하루에 3번 양치질하기’처럼 ‘하루에 몇 번 손씻기’ 등과 같은 기억하기 쉬운 표어를 홍보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손씻기 실천 향상을 위해 공중 화장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무식 외(2015) 따르면 성인은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의 손씻기 환경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 응답한 비율이 29.8%였고, 손씻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누 및 손 전용 세정제 설치, 핸드 드라이기나 핸드 타올 설치 순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김종규(2009)의 손씻기 관찰연구에 따르면, 화장실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손씻기 수행율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 손씻기 실천율 증가를 위해 화장실 환경 개

선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설문지 문항 면에서 보건계열 대상자에게 손씻기 실천에 대한 질문이 임상실습에서의 손씻기인지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손씻기 실천 질문 중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라는 항목이 있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대상자들의 실제적인 실천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 대상면에서는 비보건계열 대상자의 전공이 상경대와 공대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모든 문항은 자가보고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태도와 실천면에서 개인 간의 기준이 다르다. 유성미(2013)와 박대권(2008)의 연구에서도 자가보고형 설문지가 아닌 관찰자 보고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직접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태도와 실천을 측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계열 간 손씻기 지식, 태도, 실천의 차이를 규명하고 지식, 태도, 실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손씻기 지식과 태도 면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상관관계는 보건계열에서는 태도와 실천간, 비보건계열에서는 지

식, 태도, 실천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씻기 실태를 비교한 연구가 없었고, 이를 파악하고 지식, 태도,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Atuyambe LM et al 외 (2016). Undergraduate students' contributions to health service delivery through community based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by the MESAU Consortium in Uganda. BMC Medical Education. 16(123), 1-11.
2. Brae V. Surgeoner, MS 외 (2009). University Students' Hand Hygiene Practice During a Gastrointestinal Outbreak in Residence: What They Say They Do and What They Actually Do.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72(2), 24-8.
3. Can G et al(2008). Comparison of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in Istanbul, Turkey. Nurs Health Sci. 10(4), 273-80.
4. Cathy B et al (2000). Health Habits of Nursing versus Non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 Nurs Educ, 39(7),

- 308-14.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 Hands Save Lives!. Available at: <http://www.cdc.gov/cleanhands/>.
 7. Draelos, Zoe Diana. Record (2013). Title: Quick clean: Which hand sanitizers are most practical and effective?. Dermatology Times (DERMATOLOGY TIMES), 34(5), 35-35.
 8. Ko IS. (1995) A Study on the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Teachers in Seoul [dissertation]. Seoul, Korea National University
 9. Vessey, Judith A 외 (2007). Comparing Hand Washing to Hand Sanitizers in Redu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senteeism. Pediatric Nursing, 33(4), 368-72.
 10. WHO (2009) <http://www.who.int/en>.
 11. 고일선 (200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손씻기 수행 및 태도 조사. 기본간호학회지, 9(2), 166-179.
 12. 김동희. (201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이행. 글로벌 건강과 간호, 2(1), 26-33.
 13. 김희선 외 (2008). 대학생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3), 506-520.
 14. 박대권 외 (2008). 일부 고등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실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3), 74-91.
 15. 백희정 (2011).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5(1), 73-83.
 16. 송영구. (2005). 전염병의 역사는 '진행 중'. 대한내과학회지, 68(2), 127-129.
 17. 양남영 외 (2014).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비누로 손씻기 실천 및 관련요인. 한국보건학회지, 28(2), 372-386.
 18. 유성미 (2013). 보건계 대학생의 손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도.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8), 3916-3924
 19. 이선미 (2015).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120-6129,
 20. 전화연 외 (2004).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건강행위양상 비교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2(1) 7-24
 21. 장동방 외 (2015). 한국 학생의 손씻기 실천과 감염병 이환과의 관련성. 농촌의학·지역보건, 40(4), 206-220.
 22. 장윤정 외 (2007). 일부 중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henomenon, 24(4), 1-22.

23. 정재심(2002).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젤의 손소독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4(2), 127-137
24. 정재심 등 (2007). 전 국민 손씻기 이행 및 인식 실태. 예방의학회지, 40(3), 197-204.
25. 최혜선 (2015). 대학생과 일반성인의 위생 행위 비교.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4), 315-322.
26. 한세형 외.(2015) ,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올바른 손씻기 유도를 위해 넛지 이론을 적용한 스마트 거울과 세면대 디자인 모델 제안. 아시아디지털아트앤디자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96-697.
27. 최은희 외(2014). 손씻기 교육이 대학생의 손씻기 지식, 태도 및 이행정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1), 39-49.
28. 이무식 (20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실태조사 및 실천률 향상 전략 개발. 건양대학교, 질병관리본부